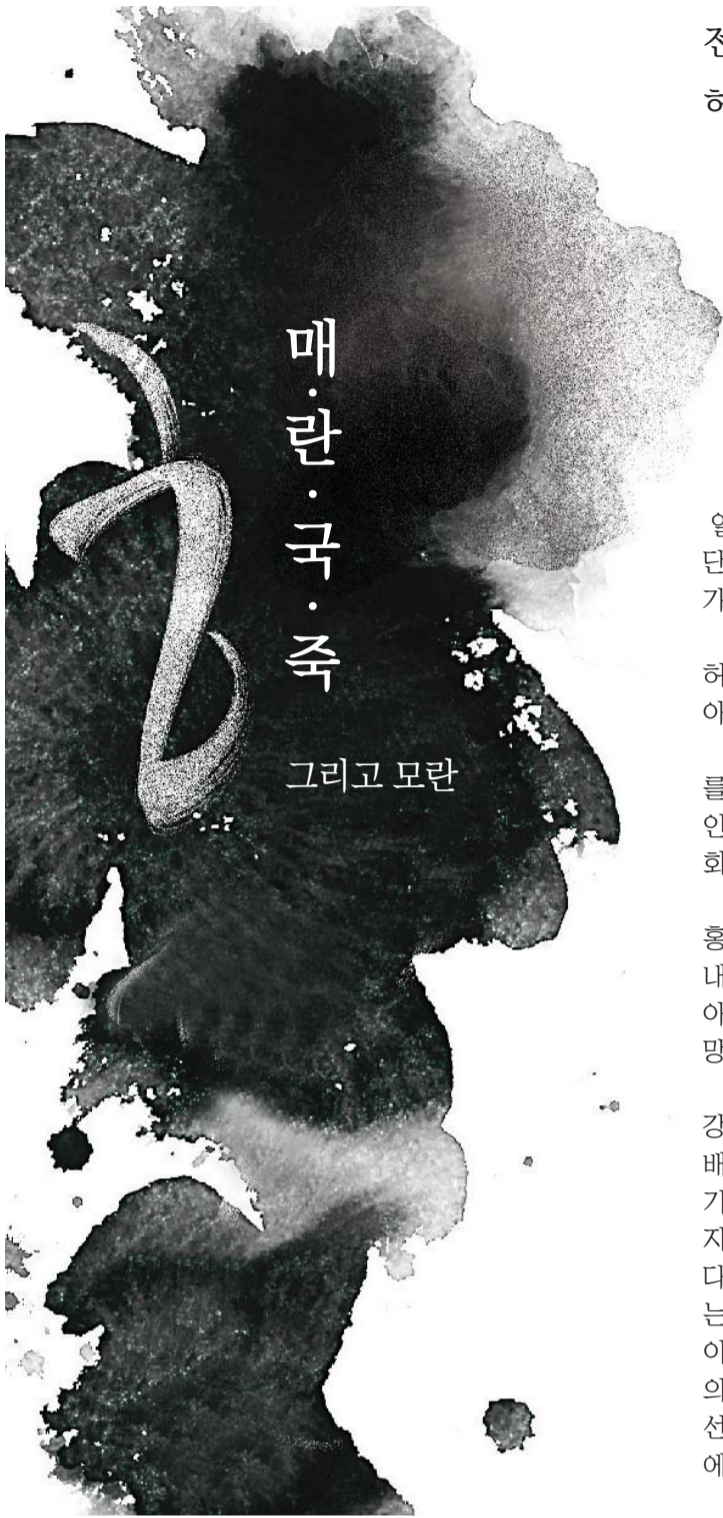


전라도 수묵 '뮤지컬'로 스며든다

전라도천년기념뮤지컬추진위 '매·란·국·죽 그리고 모란' 무대 허련 등 19세기 서화가 삶 조명... 12월 13~15일 프리뷰 공연



전라도 정도 천년을 맞아 전라도 수묵과 문인화의 전통을 다룬 뮤지컬이 무대에 오른다.

전라도천년기념뮤지컬추진위원회(공동위원장 홍인화·허진·허달용)는 최근 광주시 동구 의재미술관에서 더 K-뮤지컬 '매·란·국·죽 그리고 모란'의 제작발표회를 열었다. 오는 12월13~15일 의재미술관 무대에 오르는 이 작품은 의재문화재단, 남농미술문화재단, 공연단체 나모문화네트워크가 함께 제작한다.

'매·란·국·죽 그리고 모란'은 추사 김정희와 소치 허련을 중심으로 19세기 서화가들의 삶과 사상을 담았다.

진도에서 태어난 '시골뜨기' 소치 허련은 초의선사를 거쳐 추사에 추천돼 서화 공부에 몰두한다. 실력을 인정 받아 헌종 앞에서 그림을 그렸지만 세상에 대한 회의와 불확실성이 늘 응어리로 남는다.

이 작품은 '모란'에 빚든 흥란이라는 가상의 여성을 내세워 시대의 예술을 담아내고자 했던 민중의 열망을 표현했다.

최근 연극 '리어왕'에서 강렬한 인상을 남긴 중견 배우 박규상이 추사를 연기하고 양길호(소치), 최지연(흥란)씨가 출연한다. 국악 작곡가 양승환씨는 우리 소리와 현대음악이 조화를 이룬 노래 '조선의 르네상스', '꿈꾸는 조선 새로운 조선' 등을 무대에 올린다. 사대부들에 의해서만 시

·서·화가 향유되던 시대, 추사 김정희를 중심으로 한 중인예술가들의 예술은 외롭고 쓸쓸했다. 그들의 예술은 진도 윤림산방에서 후진을 양성하기 시작한 소치 허련으로부터 새싹을 틔워 호남문화의 전통으로 이어진다. 이 작품은 궁극적으로 권력에 대항하는 민중의 모습을 '광주 정신'으로 표방하고자 했다.

극 중에는 호남문화의 예술혼을 그려낸 미디어아트 작품들이 배경으로 등장한다. 또 공연과 관련한 다양한 문화관광 상품들도 선보일 예정이다.

또 뮤지컬추진위는 이 작품을 통해 광주·전남의 공연 브랜드를 마련하고 해남 녹우당, 진도 윤림산방, 목포 남농기념관, 광주 춘설현과 의재미술관 등을 서남해안 관광문화와 연계할 계획이다. 오는 12월 프리뷰 공연을 가진 뒤 내년 5월 본 공연을 펼친다. 문의 062-672-7782.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전라도 수묵과 문인화의 전통을 다룬 뮤지컬 '매·란·국·죽 그리고 모란'이 오는 12월 무대에 오른다. 최근 광주시 동구 의재미술관에서 열린 제작발표회.

빛고을 수놓는 풍자·해학

전국민족극한마당 29~30일 靑문화전당 20여 극단... 日 달오름 '4·24 바람' 등 참여

전국 20여 개 극단이 광주에 모여 풍자와 해학의 한마당을 선보인다. 마당극 중심의 야외 공연예술 축제 '제28회 전국 민족극한마당'이 오는 29~30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하늘마당에서 열린다.

1988년 서울에서 시작한 전국민족극한마당은 제주, 부산 등 전국 곳곳에서 열리고 있으며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광주에서 무대를 올린다.

이번 광주 행사에는 전국 20여 개의 민족극 극단들이 참여한다. 충북 꼭두광대의 '원손이', 대전 마당극단 종다의 '경로당 폰팅사건', 부산 황해소·고창 남기성·통영 이강용의 '3인 3색 예인 열전', 부산 자갈치의 '광대열전', 청주 예술공작

두레의 '꿈에라도 낮이라도' 등이 민중성과 전통성의 맥을 잇는 공연을 펼친다.

올해는 일본 오사카 달오름의 '4·24의 바람'이 주목을 끈다. 이 작품은 재일 한국인들이 조선학교를 지키려하는 '4·24 한신교육투쟁'을 다루면서 재일동포들이 당하고 있는 차별 실태를 고발한다.

이번 행사는 사단법인 한국민족극운동 협회·국립아시아문화전당·아시아문화원이 주최, 전국민족극한마당추진위원회가 주관하며 한국문화예술위원회·광주시·광주상공회의소·광주민족예술단체총연합 등이 후원한다. 무료 관람. 문의 010-8601-5274.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부산 자갈치의 '광대열전'(왼쪽)과 일본 오사카 달오름의 '4·24의 바람' 공연 모습.

예스24 시프트북스 웹소설 공모

12월 20일까지 20회차 이상 연재... 28일 선정작 발표

인터넷 서점 예스24(www.yes24.com)는 '제4회 예스24 시프트북스 웹소설 공모전'을 실시한다.

예스24가 주관하고 C47 인베스트먼트가 후원하는 '제4회 예스24 시프트북스 웹소설 공모전'은 영화, 드라마 등 2차 창작물의 근간이 되는 웹소설 분야의 신인 작가 발굴을 위해 기획됐다.

이번 공모전은 디지털 콘텐츠 연재 플랫폼 시프트북스를 통해 'LOVE! LIFE! WRITE!'라는 표제 아래 '세상의 모든 즐거운 이야기를 한곳에 모은다'는 주제로 진행된다.

응모 방법은 로맨스, 로맨스 판타지, BL 등의 장르물을 해당 5500자 이상 분

량으로 완성한 후, 예스24 시프트북스의 '자유연재(http://shiftbooks.yes24.com/eFreedom)' 페이지를 통해 오는 12월 20일까지 20회차 이상 연재하면 공모전에 참여할 수 있다.

수상작은 예심과 본심을 거쳐 대상부터 인기상까지 총 6개 작품이 선정되고, 오는 12월 28일 시프트북스 웹사이트를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수상작은 ▲대상 1명 1000만 원, ▲금상 2명 500만 원, ▲은상 2명 200만 원, ▲인기상 1명 100만 원의 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며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yes24.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패기의 젊은 무용가 만나세요

광주무용협회 내일 빛고을시민문화관



'카디날의 겹' 공연 모습.

광주 무용계 젊은 안무가와 무용수들을 위한 무대가 마련된다.

한국무용협회 광주시지회(회장 이영애)는 오는 29일 오후 7시 광주시 남구 빛고을시민문화관에서 '2018 젊은 무용가 초대전'을 연다.

광주문화재단이 지원한 이번 공연에서는 패기와 열정으로 뭉친 젊은 무용인들의 창의적인 작품을 만날 수 있다. 한국무용, 현대무용, 발레 등 다양한 장르를 아우른다.

이번 공연은 광주대학교 겸임교수로 활동하는 피아니스트 박의혁의 축하공연으로 문을 연다. 이어 25회 전국무용제에서 연기상을 수상한 구윤지 광주시립발레단 차석 무용수와 우건희 상임단원이 '지젤' 2막 중 '파드뒤'를 무대에 올린다. 또 강은혜, 이기행 시립발레단 단원은 '백조의 호수' 3막 '흑조 그랑파드뒤'로

호흡을 맞춘다. 황창환이 안무를 맡고 정성원, 최규호가 출연하는 댄스 프로젝트 '동행'을 통해서도 함께 느끼고 교류하는 소통을 이야기한다.

마지막으로 지난해 열린 26회 전국무용제에서 대상인 대통령상을 비롯해 무대미술상, 연기상까지 차지한 한국무용 '카디날의 겹'이 무대를 장식한다. 이 연정 광주무용협회 이사 안무를 맡은 이 작품은 수천 개의 알을 입안에 넣고 3개월 동안 보살피는 '카디날 피시'의 부성애를 그렸다.

한편 지난 8일 막을 내린 '27회 전국무용제'에서 광주 대표단으로 출전한 광주뿌리한국무용단의 '음.양'이 은상을 받고, 이 작품의 무대디자인을 맡은 유승용씨와 조명 담당 김철희씨는 무대예술상을 수상했다. 문의 062-514-2636.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 를 쳐보세요”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자연의 소리... **국제보청기**

한정식 **A코스 50,000 | B코스 40,000 | C코스 30,000**
일품요리 **굴비정식 | 삼합정식 | 떡갈비정식 | 황태찜정식 | 새우튀김정식 22,000**

대를 이은 가족모임 다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족 모임이 시작되는 각별한 인연 **금수장호텔 아리랑하우스**
www.geumsoojang.com **예약문의 (062) 525-2111** 계림동 흥플러스 건너편

광주 **맛집** since 1981 37년을 고객과 함께 지켜온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